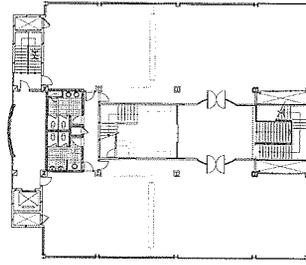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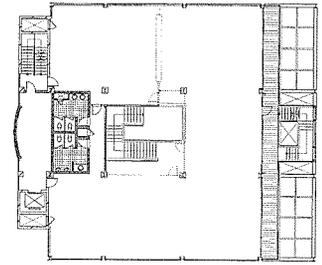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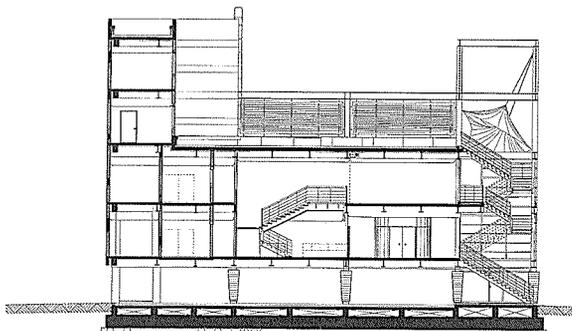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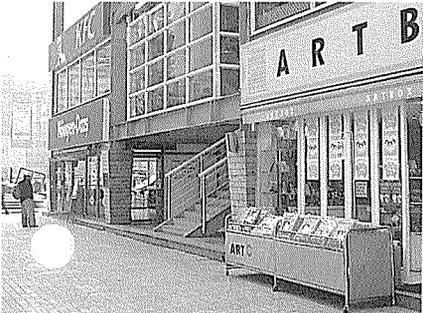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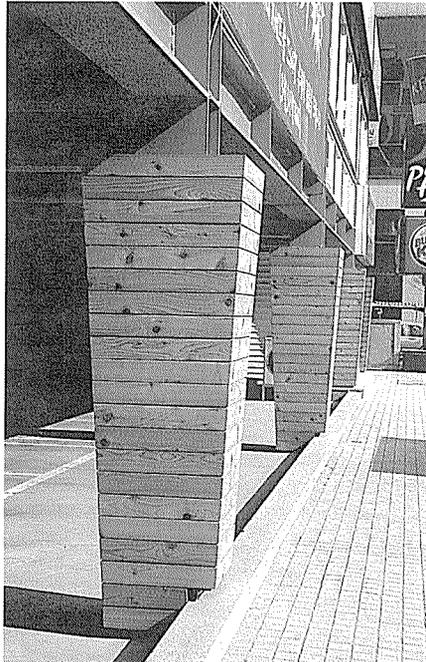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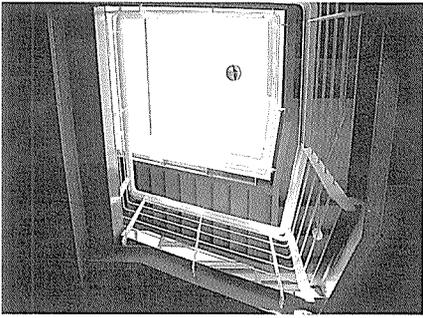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횡단면도

0 1 3 5 10m

두산 주엽빌딩의 대지는 일산 신도시의 주엽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지로서 40M 전면 대로와 측면, 후면의 10M 도로에 접해 있다. 작금의 신도시가 그러하듯 건축물이 뿌리 박고 서야 할 땅의 역사의 흔적이나 존재가치는 찾아볼 수 없는데다 또 다른 복병-확일화된 도시설계 지침-들, 가령 전면 공지확보, 건축지정선과 한계선, 층수제한(5층이상 10층이하) 등으로 인하여 가로변의 건축물은 일렬 횡대로 온갖 간판과 광고물로 뒤집어 쓴 채 도열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는 많으나 선불리 건물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흘러 가야만 하는 무형의 선이 도시와 건축사이에 그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산 K.F.C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행위는 어떠해야 할까? 차라리 건물이 도시에 노출되어 건물의 요소들이 도시의 한 부분으로 제공됨으로써 보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두산주엽 빌딩의 건축적 구성 개념은 첫째로 이러한 도시적 요구가 기본이 되었다. 도시와 건축의 구분화보다는 상호관입 가능성이, 폐쇄적이기 보다는 개방적인 배치 방법이, 그리고 건축 요소들의 중간영역화 등이 건축에 요구되어졌다. 건축에 동원된 모든 건축요소들-피로티, 전면의 외부계단, 발코니, 상부의 막구조, 경사창을 통해 내외부가 교감을 갖게하는 투명창 등 모든 것들이 도시민들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도시의 무대 장치로 쓰여지도록 구성되었으며, 이곳을 찾아 드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시 속의 건축, 건축속의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 바람을 가져본다. 이러한 건축적 개념들은 패스트 푸드점이라는 도시적 이미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전제가 되었다. 둘째로 두산주엽빌딩이 도심의 상업건축물로서 시민들의 도시생활에 활기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적과의 동침으로 비유되는 굴지의 외식업체가 함께 입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마케팅 전략에서부터 출발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대신 1층을 피로티로 처리하여 지상 주차장을 확보하며,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가진 입점업체들의 균형있는 임대조건과 고객의 접근성을 위하여 3층에 입점할 업체의 리셉션 홀을 2층의 중앙에 배려하게 되었다. 또한 전면의 반외부공간(Semi-Public Space)인 계단을 통하여 건물의 Roof Garden까지 고객의 흐름을 유도하여 한여름엔 별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